

## 청소년의 종가 생활문화 현장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가 복식문화 사례 연구 -전남 함평 종가를 대상으로-

서리나<sup>†</sup> · 유명익<sup>\*</sup>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동신대학교 의류학과<sup>\*</sup>

### A Case Study on the Costume Culture of the Head Family for Adolescent's Spot Experience Studying

Lee-Na Seo<sup>†</sup> and Myung-Iee Yoo<sup>\*</sup>

Center for Korean Studies, Hawaii University

Dept. of Textile & Clothing, Dongshin University<sup>\*</sup>

(2003. 5. 27. 접수 : 2003. 9. 13.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ses of the family head's costume culture and to apply them to field experience education of adolescent's home economics subject. To examine the family head's costume culture, women in the family head in the Hampyeong area, Jeollanam-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focus of examining the family head's costume culture was on the life story of the family head, the reason to wear or possess such costume, and a motive of making. The findings of the head family's costume culture suggests that the head family of the Mos of Hampyeong had unique shroud making and custom. Also it was found that the eldest daughters-in-law of the Lees of Hampyeong have horizontally exchanged the information of the family head's costume with village women of the same family. They have initiated their costume culture directly through their daughters and it had the great influence on after-ages. The learning program for youth to experience the head family's costume culture consisted of four subjects:(1)Educating the family head's traditional living culture including etiquette training, (2)head family village walk, (3)experiencing the family head's clothes life including natural dyeing and sewing, and (4)a field trip of Hampyeong Local Life Culture Museum. For a model experience of the family head's costume life culture, three families with middle and high schoolers participated in 8- hour experience learning program. To examine the effect of learning program to experience the family head's costume culture, youth and their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asked open-ended questions, which included the content validity of experience learning, impressive experience, model experience level(difficulty), and expected effect after a model experience. As a result, their responses were found positive.

*Key words:* costume culture(복식문화), head family(종가), spot experience(현장체험).

#### I. 서론

인간은 문화적인 삶을 통해 살아간다. 인간의 문화적인 삶은 어떤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

<sup>†</sup> 교신저자 E-mail : leenaqueen@hanmail.net

거나 적용되는 공통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사회화된 행동양식 등이 있고, 또한 개인 및 가정, 사회조직과 국가, 민족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특수한 문화적 측면이 존재한다. 인간 생활은 자연이나 역사,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화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자연과 역사(사건과 인물), 사회의 제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형성되고 존속되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 사회제도 등이 변하게 되면 문화도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sup>1)</sup>. 전통 생활문화의 경우 지역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전통생활문화는 그 지역의 지리·기후 조건과 역사, 독특한 사건과 인물들, 지역사회제도 등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라남도도 넓은 평야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기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전국 생산구조와 비교해 보면 전남지역의 최근 농림어업 비율이 약 20% 이상<sup>2)</sup>을 차지할 만큼 농업 중심적인 지역이어서 아직은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은 채 농촌 마을의 자연 환경과 함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전통 문화가 어느 정도 간직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현대의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의 영향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지역 곳곳에 생활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상생활의 질적 기준의 변화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정부<sup>3)</sup> 및 학계<sup>4)</sup>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종가의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지역 연구<sup>5,6)</sup>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가는 가문의 종손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종택을 유지하고 가문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한국의 독특한 확대가족 형태이다. 특히 과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가문의 부와 명예, 그리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종가마을은 동족마을의 형태를 띠었고 종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문화가 유지되고 발달하였다. 따라서 종가는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주변마을의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가 중심의 생활문화는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를 통한 유형 문화자원과 함께 여성(종부와 딸)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온 가풍과 종가 내력사, 솜씨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자원이다. 본 연구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종가 복식문화는 종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전해 온 종가와 종부의 삶의 이야기와 그녀의 솜씨가 어울어진 하나의 무형문화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복식 유형을 나타내는 유형문화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종부는 종가의 며느리이며 종손의 부인이었고 다른 종가에서 시집은 딸인 여성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종가의 복식문화는 친정어머니의 솜씨가 기본이 되어 시댁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된 솜씨가 어우러진 독특한 복식문화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지역인 함평에 위치한 몇몇 종가의 복식문화가 가문의 조건과 생활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씨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달한 가문과는 상이한 독특한 복식문화 양식을 가질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환은 자녀들의 도시로의 이주와 함께 전통적 (종가)생활문화가 가족원(특히 며느리나 딸)을 통하여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종가의 전통생활문화는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전통에의 향수를 자극하게 되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자기실현욕구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적 욕구의 분출로 이어

1) 나경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전남대학교 박물관(2003), pp. 5-7.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7), pp. 144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2003), www.korani.org.  
 4) 한국가정과학회·전남대 생활과학연구소, 전통문화의 상품화(2001), 2001년도 학술대회.  
 5)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 "남도 종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2002), pp. 34-46.  
 6) 이연자, 전년의 삶으로 이어온 종가이야기(서울;북이십일, 2001).

지며 문화적 목표가 현대 생활의 중심에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 지역축제나 문화관광, 또는 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등이 지역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프로그램은 방문하는 나라, 또는 지역들이 지켜 온 전통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생명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것은 대중(또는 청소년)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여 대다수의 사람들(또는 청소년)에게 문화적 상징 및 가치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사회화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sup>7)</sup>고 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의 문화 전달력과 사회화의 정적 기능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 본 연구의 종가의 복식·생활문화 같은 문화적 원천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종가 전통생활문화와 복식문화의 가치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경우, 초등교육과정의 실과와 중·고등학교 가정·기술 교과(인문계) 및 가사계열 교육 교과(실업계)와 관련지어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의 적용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실과 및 가정·가사계열의 교과가 실생활에의 유용성과 일상생활의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점<sup>8)</sup>에서 종가의 전통생활문화는 한국의 가정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역사적 주요 교육소재로 개발될 수 있으며, 또한 음식이나 의복 등의 생활기술을 제작의 경험을 통해 일의 성취감을 느끼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가정 및 직업생활에 적용하는 점을 강조하는 교과라는 점<sup>9)</sup>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실습교육의 소재로 타당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지닌 여러 전통문화 가운데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적 단위 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종가의 복식생활문화를 주요한 전통 문화자원으로 보고 이를 현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다. 생활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전남 함평 지역 종가의 고유한 복식생활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연구자료로 삼아 실과 및 가정·가사계열 교과의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종가복식문화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함평 지역 종가의 복식문화의 사례가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청소년 교육의 학습자료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과 기초를 학습하고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II. 연구 배경

### 1. 종가의 전통 복식·생활문화

전통은 시간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이란 개념은 생활습관이나 풍속 등이 시간적 순서를 밟아 전시대에서 다음시대로 전승되는 흐름을 의미한다는 점<sup>10)</sup>에서 현대와 대립되는 과거의 낡은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기보다는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생활 속에서 살아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생활문화는 가정과 사회에 오랜 세월동안 스며든 그 민족문화의 전통적인 정수라고 말할 수 있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여러 문화 현상들이 제각기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화적 원천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생활문화의 문화적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종가의 생활문화이다. 한국의 종족제도는 17세기 무렵 발달하였고, 이후 한 성씨가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어 자작(自作) 일촌(一村)하는 동족마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종가는 한 성씨의 문중에서 장손(宗孫)으로 줄곧 이어온

7) 김문환, *문화경제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8) 박우미, 신효식, 오만록, 유명희, 최옥자, *가정과 교육론*(서울; 학지사, 1998), pp. 14-15.

9) *Ibid.*, pp. 74-75.

10) 이왕기, "전통적 주생활 문화환경의 관광상품화 전략," *한국가정과학회·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년도 학술대회*(2001), pp. 9-23.

11) 이숙, 홍윤호, 신윤숙, 신효식, 한경미, 최정미, 김은정, "한국전통생활문화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12호*(2002), pp. 57-69.

가문의 큰집을 말한다. 종가에는 동(同)조상의 위패를 모신 가묘(家廟), 부조묘(不統廟)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종가에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제일 먼저 올리는 곳이었다. 또한 종회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종중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종가는 이와 같이 종중의 모든 행사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종가는 가문의 맏이로서 부모·형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sup>12)</sup>. 그 대표적인 역할 담당자가 바로 종손으로 종가에 살면서 대대로 가문의 장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종가가 종가로서 존재하고 종손이 종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종부(종손의 아내)의 피나는 노력과 집념이 크게 작용하였다. 종가에서 종부의 역할이나 의미는 종부의 자리가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이유와 관련되었다. 즉 종부의 역할 없이는 봉제사, 집빈객, 종가의 재산관리, 문중의 각종 부조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역할을 종부가 담당하였던 것이다<sup>13)</sup>. 따라서 종부나 종가의 여성이 담당하는 안살림, 특히 의식주 중심의 가문의 생활문화는 종손의 며느리와 딸을 통해 전승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종가가 동족마을에 위치하였고 가문의 행사가 종가에서 빈번하게 수행되고 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 주변 사람들, 다시 말해 종부의 일을 돕는 동네 여성들의 역할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가의 전통생활문화가 며느리와 딸을 통해 종적으

로 가문의 가정문화를 대를 이어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황적으로 종가의 생활문화는 종가가 위치한 동족마을의 문중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종가의 생활문화가 종가가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어떤 지역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종가 생활문화 전통이 유지되어 남아있는 문화적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전통생활문화의 원천으로 종가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종가의 생활문화 중 종가 복식문화를 종부 중심의 조사를 통해서 전통 의생활문화의 원천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 복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역사적 자료 근거에 의한 복식문화 연구와 국제 비교문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내 복식문화 연구는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문헌과 유물을 통한 실증적인 고찰이나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의례시 착용하는 복식의 의미, 착용법, 시대에 따른 의례복의 변화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sup>14)</sup>. 일련의 전통 복식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sup>15,16)</sup> 및 한복 연구<sup>17)</sup>를 비롯하여 전통염색<sup>18)</sup>이나 보자기, 자수 등의 규방공예와 관련된 연구<sup>19-21)</sup>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활문화적인 차이를 근거로 하여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따라 민속복식을 연구한 유혜경 등<sup>22)</sup>과 홍나영 등<sup>23)</sup>, 이주현 등<sup>24)</sup>의 연구들이 최근 비교문화적

12) 전경목, "전라남도 종가조사역사편," 남도 종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워크샵 자료집(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 2002), pp. 5-18.  
 13) 선영란, "생애사를 통해 본 종부의 정체성,"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2002).  
 14) 이숙 외, *Op. cit.*  
 15) 나수임, "한국외례복식의 기호학적인 분석," 복식문화 8권 5호(2000), pp. 20-31.  
 16) 김용서, "진도지방의 남자 상례 제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3집(1993), pp. 67-84.  
 17) 한옥주, "한국 고유복식의 변천원칙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18) 신윤숙, 최희, "자초색소의 특성분석 및 염색성(제 3보)-면섬유에 대한 자초색소의 염색성-,"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2002), pp. 422-430.  
 19) 김성희, "조선시대 보에 관한 연구," 전주유적대논집(1994).  
 20) 김연미, "장신구의 주술적 요소와 상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6).  
 21) 배순미, "한국전통매듭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22) 유혜경, 홍나영, 이주현, 김찬주,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제 1보)-근대 동남 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1998), pp. 1043-1051.  
 23) 홍나영, 김찬주, 유혜경, 이주현,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제 2보)-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지 17집(1999), pp. 315-334.  
 24) 이주현, 유혜경, 김찬주, 홍나영, "현대 한국인의 한복착용: 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2001), pp. 37-49.

관점에서 이루고 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및 특정 종가에 관한 절적인 복식문화 연구나 지역(종가)복식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2. 종가 복식·생활문화와 현장체험학습의 관련성

종가 복식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수되어야 할 가치 있는 전통을 가진 생활문화로서 계승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종가 여성을 중심으로 전수되어온 종가복식문화는 전통생활문화의 한 생활실습 영역이므로 지금의 초등 교육의 실과교육과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와 실습교육과 관련지어 적용하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6차까지 독립되어 왔던 기술·산업과 가정 교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교과가 됨에 따라 두 교과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5, 6학년의 실과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제 10학년까지 6개년간 연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sup>25)</sup>. 초등 실과교육을 토대로 기술·가정 교육은 실험·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과정과 토의 학습, 사례 조사, 견학 등 학생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가정 교과는 학습되는 사실이나 원리와 관련된 활동을 실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실습이 추가 되는 교과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개발된 기술·가정과 학습 평가유형 및 방법을 보면 실험 및 실습법을 비롯하여, 포트폴리오 제작, 관찰법, 서술형 및 논술형, 자기평가, 연구 보고서법(프로젝트법), 찬반토론법 등을 바람직한 적용방법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가정과 학습이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아닌 실천적인 학생 중심의 체험적 수업을 중시하는 경향<sup>26)</sup>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종가복식문화는 전통생활문화 중 의생활영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되는 교과는 기술보다 가정과 영역

이다. 가정과 영역은 크게 가정생활의 설계와 가정생활의 실제이며, 다시 세분하면 가정생활의 설계는 가정생활문화의 변화와 가족생활주기 및 생활설계, 결혼 및 육아이고, 가정생활의 실제는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나의 주거공간 꾸미기로 구성되어 있다<sup>27)</sup>. 청소년들이 종가 복식문화와 관련하여 실습체험학습을 직접 적용할 수 영역은 가정생활의 설계 부분에서 종가를 매개로 전통생활문화의 문화적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생활문화의 변화>가 관련될 수 있다. 가정생활의 실제 부분에서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영역은 종가의 방문 예절교육 체험으로 연계 가능하며,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는 종가 복식문화 연구 자료를 근거로 실제 다양한 종가 의생활문화 체험을 실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료(2003년)<sup>28)</sup>에 의하면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학습 전개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과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내용 구성을 하고, 체험 및 현장견학 등을 반영한 실천 중심 학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중점 3개 교과 영역으로 가족과 일의 이해와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종가를 통해 성씨 중심의 한국가족의 구조적 체계를 학습하고, 종가의 복식문화를 토대로 하여 체험아이템(예, 천연염색, 자수체험, 수의 제작, 생활용품 제작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남도지역의 경우 천연의 자연환경(자연관광자원 요소)과 농촌지역에 위치한 종가(생활문화의 문화적 원천 요소)를 소재로 한 종가문화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즉 종가가 청소년교육의 현장이 되고, 종가의 전통생활문화 중 종부에게 전수된 복식문화가 청소년의 생활체험교육의 학습 아이템이 되어 가정과 기술 실습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 더불어 종가의 생활문

25)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자료 136(2002). 재인용. p. 7.

26) *Ibid.*, pp. 11-24.

27) *Ibid.*, pp. 144-203.

28)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교과 교육과정 연수방향 설정 워크숍-제7차 교육과정지원 강화협의단 시·도 교과요원 연수자료-,” 교육과정자료 157(2003).

화 전통이 교과과정에 적용되어 전라남도의 지역 및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차세대 청소년 체험학습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체험학습의 목표는 전라남도 실업계 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전라남도의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모델에 관한 유명희·서리나 연구<sup>29)</sup>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실업계 가정·가사 계열은 문화관련 산업이나 문화관광관련 산업, 의식주의 생활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특성화가 진로 탐색 및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남도의 증가복식문화를 청소년 대상의 체험학습 실습교육에 적용해 보는 것은 지역의 가정문화의 전통을 전달받고 그 가치를 인식하게 목적을 둔 실과 및 가정·가사계열 교과와 교육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한 의생활 실습체험학습은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개선을 시도하는 교사들의 지적 전문적 노력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 1) 증가 복식문화

증가 복식문화의 조사대상은 복식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함평 소재 증가의 복식문화를 기억하고 40년 이상 복식을 직접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중부 및 후손들로 한정하였다. 선정 대상은 함평모씨 증가의 중부 이정금(60세)씨, 함평이씨 증가의 중부 박춘삼(83세)씨, 그리고 함평이씨 증가의 손인 이하(80세)여사이다.

##### 2) 시범체험학습

시범체험학습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가진 세 가족(총 9명)이 임의 선정되었다. 청소년은 여자 중학생(15세) 1명과 남자 중학생 1명(16세), 여자고등학생 1명(17세)으로

각각 부모와 함께 8시간 시범체험학습에 참가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내용

##### 1) 증가복식문화

조사기간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답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행하였다. 조사가 미비한 경우 전화를 통해 보완하거나 재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조사는 함평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술 채록 및 사진촬영이 병행되었다. 인터뷰는 복식의 다양성보다는 중부 및 후손(딸)이 살아왔던 이야기와 함께 그러한 복식을 착의하거나 소장하게 된 경위, 제작동기 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밖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의례복과 전통길쌈 및 염색,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규방공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 2)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범체험학습

함평 지역의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원천자료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수행된 『남도 증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동시대 여성문화연구소, 2002)』의 함평 지역 시범체험관광코스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체험학습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별로 나누어 증가의 역사이야기와 예절교육 체험, 복식문화 체험, 증가마을의 관찰, 증가 지역의 농가특산물 및 생활유물(유적)의 견학 등이 포함된다. 1일 총 8시간이 소요되는 체험학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문화체험의 내용에 따라 1시간, 2시간과 3시간이 드는 체험/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융통성있게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과 관련된 교과 영역은 기존의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가정생활의 이해>와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교과에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29) 유명희, 서리나,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모델-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권 3호(2002, 12), pp. 11-24.

30) 교육인적자원부 역, "교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 OECD 발간자료 『Education Policy Analysis 1998』.

중가복식문화가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의 소재로 적합한 지 그 교육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범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시범체험교육은 2002년 3월 9일에 시행되었고 크게 시범체험프로그램의 타당성, 인상적인 체험내용, 시범체험의 수준(난이도), 시범체험 효과(만족도) 등이 부모와 청소년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되었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함평 종가의 복식문화

###### 1) 함평 모씨 종가의 복식문화 사례

###### (1)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대상자인 종부 이정금씨(60세)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 2구에 거주하고 있다. 19세 되던 해에 친정인 손불면 양재 1구에서 남편인 종손 모재원씨(67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전주이씨 집안인 종부 이정금씨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바느질 솜씨를 전수 받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정금씨 부부는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

###### (2) 조사 내용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이정금씨는 13세 무렵부터 바느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살던 동네에 시집오는 아낙의 농지기 옷이나 장신구 등을 구경하는 것을 즐겨하였으며, 집에 와서는 구경했던 소품들을 직접 연습해 보았다고 한다. 또 시집가기 전까지 친한 친구들과 모여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함께 자수도 놓고 조각보를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이었다고 한다. 자수는 친정어머니께 전수 받았다.

종부 이정금씨가 시집 올 당시 해 온 농지기 옷의 소재로는 모시옷, 미응옷(무명), 목화솜 넣은 미응옷 등이었다. 당시는 비단옷이 별로 없을 때였으므로 호박단, 양단, 모시치마 등이 주된 품목이었다고 한다. 농지기 옷의 품목으로 이정금씨의 옷은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였으며, 아저씨 옷은 명주로 만든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조끼 등이었다. 시집 올 당시만 해도 이런 옷들을 다 만들어 입었으나 생활이 서

구화되면서 직접 제작하지 않게 되어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소품으로는 복주머니, 조각보 등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삼베로 제작한 상보자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혼인할 때 입었던 원삼 죽두리는 함평 이씨 종가에 시집온다고 시집에서 만들어서 보내왔던 것으로 매우 화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집안 동서들을 맞을 때 빌려주곤 해서 현재는 분실한 상태라고 하였다. 다음은 농지기 옷에 관한 종부의 진술이다.

그때는 농지기 옷만 입고 살았지. 시집오면 옛날 어른들 누가 옷을 해 주냐? 다 농지기 옷 입고 뜯어서 다시 만들고 다 그렇게 입고 살았지. 시집와서는 충충시하 아래서 매우 엄하게 살아왔어. 그때 농지기 옷으로 해 온 것들을 지금은 잘라서 이겼저것 다 해 입고 있지...

당시 의복의 세탁 방법은 대부분 비누로 씻고, 삶았을 때, 비누의 공급이 넉넉하지 않아서 콩대로 겻풀을 만들어 삶는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의복의 보관법은 여름옷의 경우 해충의 해를 막기 위해 풀을 하지 않고 겨울동안 보관했다가 3~4월이 되면 밥풀이나 쌀을 갈아 만든 풀로 푸새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당시만 해도 엄한 종가의 종부인 탓에 시댁어른의 옷은 길쌈부터 시작하여 염색,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부 이정금씨의 몫이었다. 대부분의 일상복은 모시를 벌에 바래서 검정이나 녹색염료를 이용하여 염색하여 지었고, 외출용 혹은 특별한 의례용 의복은 명주를 이용해서 제작하였다. 한편 종부 이정금씨가 20세 때 짠 모시 베로서 현재까지도 그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했는데 매년 봄이면 세탁을 하고 말려서 보관해 온 덕분이다.

조사대상자인 종부가 의복을 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은 시어른들이 점잖은 분들인 탓에 흰옷을 애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할머니의 경우 옷을 홑겹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의복을 제작할 때 손이 많이 갔다고 한다. 시할머니께서는 주로 8폭 치마, 저고리를 해 드렸고, 나중에는 이것을 시어머니가 물려 입으셨다. 시할머니의 성격이 너무 깔끔하셔서 8폭 치마·고쟁이·겹바지·속곳까지 다 챙겨 입으셨고, 한번씩 벗어놓으시면 하루 종일 빨래만 했다고 한다.

이후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직접 수의를 제

작하였다고 한다. 이때는 시어머니가 가는 배를 만드셔서 수의를 하고, 마포로 속옷을 지었다고 한다. 겉옷은 명주로 제작했다고 한다. 한편 수의를 만들 때는 제작에 참여하는 직계 자손들이 모두 머리를 풀고 바느질을 했다. 이정금씨댁의 경우 수의를 입힐 때 금기사항으로는 제작한 후 반드시 밖에 걸어 이승바람을 쐬인 후에 입혀드렸다. 그래야 망자가 편안히 저승으로 가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반드시 임종 후에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정금씨의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손수 옷을 만들어 입혔다. 배내옷의 경우 주로 옥양목을 이용하였고, 들옷은 명주로 지었다. 또 여름에는 모시로,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비옷을 지어 입혔고 토시를 만들어 보온성을 보강해 주었다. 명절 등의 특별한 날에는 색동옷, 까치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혔다고 한다.

이정금씨댁이 증가인 탓에 제사를 지낼 때도 예전에는 한복을 차려입었고, 여자들도 모두 제례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복을 입지 않고 모든 의식을 간소하게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 2) 함평 이씨 증가의 복식문화 사례

### (1)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함평이씨 종손 이건풍(83세)과 종부 박춘심(83세)은 본래 초포에서 생활하였으나 30~40년 전 현재의 사산마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함평이씨 진사공파 20대 손인 이건풍씨는 18세에 해남 산이면 금산리 출신의 박춘심씨와 혼인하였다. 슬하의 자녀로 2남 3녀를 두었으며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전형적인 증가의 가풍을 이어받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풍씨는 결혼 후 9년간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중퇴하였다. 6.25전까지 목포의 세무서에서 근무하였으나 이후 농업만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함평을 본관으로 하게 된 시기는 고려 광종때이며, 이건풍씨 가문이 현재의 거주지인 사산으로 들어온 것은 대과를 하신 아버지 이명용씨 때라고 한다. 혼인할 당시 시댁에는 시어머니(당시 39세),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까지 생존해 계

셨으며 시동생이 넷인 대가족이었다.

### (2) 조사내용

어린 시절부터 친정이 증가가 아니었음에도 못해서 뒤로 빠지면 사람이 아니라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 덕에 길쌈에서부터 제작까지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한다. 시집 올 때 준비한 농지가 옷도 직접 만드셨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재봉틀 하나를 마련하여 동네 아이들에게 옥양목에 까만 물을 들인 양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결혼 후 시댁에서는 종부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들을 무섭게 가르쳤다고 한다. 시어머니, 시할머니와 밤 12시까지 바느질하는 날이 보통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 아낙들이 모여 길쌈하고 제작하여 조각 보나 한지공예 등의 복식문화관련 자원들이 많이 있었으나 6.25 사변으로 모두 약탈당하고 현재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해 제작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직접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마을에서 같이 길쌈하시던 여성분들도 모두 노환으로 지금은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사대상자는 함평이씨 20대 손으로 4대 봉사를 지내고 있으며, 예전에는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양복을 입고 간소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 3) 함평 이씨 이학 여사의 복식문화

### (1)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대상자인 이학 여사(80세)의 본관은 함평이씨로 친정인 함평에서 지주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21세에 전북 고창군 공음면 출신의 남편 진의종씨(당시 29세)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현재는 서울과 고창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자녀 중 둘째 딸이 이학여사의 재능을 물려받아 현재 배화여대 전통복식교수로 재직중이다. 이학여사는 원광대학교 부설 한수연구원장과 이학예술진흥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수문화>, <한수연구>, <한수미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 (2) 조사내용



조사대상자인 이학 여사는 종가 증부는 아니지만 함평 이씨 종가의 딸로 종부인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아 함평 이씨 종가의 복식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은 이학 여사의 어린 시절의 회고로써 종가 여성의 역할과 역사적인 격동기에 여성 활동의 변천 역사가 구술하고 있다.

명성황후 가시고.... 여자들은 그 이전부터 봉계사(제사를 잘 모시고)와 영빈객(오는 손님을 잘 맞이한다는)이 주 덕목이었어. 그것만 잘 하면 앞전한 요조숙녀가 되는 것이었지. 그러나 나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많았어. 그 당시 일본인들은 여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어. 학교도 만들고.... 우리집은 미국선교회에서 만든 학교를 다녔어. 그 때의 활동은 학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었지. 따라서 여자는 요조숙녀식의 교육이었어. 재봉, 수예, 편물, 가사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이었지. 내 위의 언니들, 올케가 신식여성이지....

이학 여사의 경우 소학교를 다니던 7-8세 무렵부터 저고리에서 자른 형질조각을 상자에 모아 조각보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그런 작업들에 흥미를 느껴서 주머니 등의 소품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고 한다. 소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이학씨가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13세에 서울에 있는 여학교로 진학하였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색채감각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의 생활과 본격적으로 자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우리집은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는데, 정치로 나서기에는 조금 안되고.... 여학교는 서울로 와서 색채감을 배웠지. 적령기가 되니까 결혼도 하고..... 남편 따라 일본으로 간거지. 전쟁 후 돌아와 서울에서 살림하면서 <나는 예술품이 아니고 나는 이학이다>라는 주체의식이 생기더라고. 영감성격이 엄해서.....애들 출가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려서 배운 한문으로 개인전을 15회 치렀지. 여자는 집안에서 답답한 일이 많고,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거든. 남자들과는 경쟁이 안되더라고, 처음에는 여자가 한문을

쓴다고 하니까 최소가치로 봐 주더니 조금 올라서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못봐주는 거야. 그게 엄격한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래서 한문 못하고 수를 시작했지....

이렇게 시작한 자수에 대한 관심은 생활용품을 수집하는데서 시작되었고, 수집용품에 대한 관심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섬유와 염색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모으기 시작하니까 생활용품이 제일 많더구만. 그런 것들을 사 모아서 주어져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쓸모 없거나 남의 눈에 신기하게 안보이면 자연도태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라도 명맥을 이어오는 것은 뭔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 들여다보면 색채 조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배웠겠어요. 책 놓고 가가거겨를 배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쁘고.... 거기에서 수를 시작했지. 그 시대의 섬유도 봐야 되고, 그 근원을 캐서 위로 올라가 보면 너무 많지....

자수이외에도 전통한복, 염색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 처음 버선짓는 법을 익힐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버선코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를 많이 상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저고리 삶코는 실에 바늘뿔서 잡아당기면 되지만 버선코는 그게 아니거든.. 이로 꼭꼭 눌러서 뒤집어야 이쁘게 나오지.... 버선코 이쁘게 만들려면 옛날 어른들은 이가 못쓰게 되고 그랬어..

일반적으로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명암과 원근법을 감안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품을 구상해서 완성하기까지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전문적으로 도안을 하는 분께 의뢰한 후, 그 도안에 수를 놓는 순서로 제작한다고 한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은 모두 원광대학교 한수 연구원과 숙명여자대학교에 기증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학 문화예술 진흥원을 설립하여 수공예, 자수, 염색, 섬유, 디자인, 침공 등을 연구하여 전수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2. 증가복식문화 현장체험학습

1) 청소년 대상 증가의생활문화 현장체험학습 모델 개발(안)

증가 복식문화를 청소년 대상의 기술·가정 교과목의 체험학습 주제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함평 지역의 대표 증가들에 대한 증가복식문화 자료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근거로 새롭게 개발된 청소년대상 현장체험학습의 기초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함평의 대표 증가인 함평이씨 증가를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교육의 주요한 교육 소재로 정한 다음, 증가 전통생활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4가지 주제는 함평 이씨 증가와 종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증가의 종택과 서원에 대한 관찰과 방문, 함평 이씨 증가의 복식문화 실제, 증가 소재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증가 및 증가마을(함평)에서 함평이씨 증가의 생활이야기(주제 1)를 종손이나 종부 또는 교사나 증가(지역)문화전문가로부터 직접 듣게 하고, 증가나 증가서원, 그리고 동족마을과 주변 자연환경 등을 둘러봄으로써 증가의 환경적 배경을 느낄 수 있다(주제 2). 또한 청소년들은 증가의 복식문화를 근거로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실습해 보는 증가 의생활 체험학습을 수행하게 되며(주제 3), 증가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관련 특산물 생산과정과 문화유적지를 견학하게 된다(주제 4). 이러한 주제별 체험학습 내용의 구성은 함평지역 증가복식문화를 체험학습의 초점으로 두고 증가복식문화가 현존하게 된 증가 내부의 역사와 함께 소재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동시에 학습하여 지역과 증가, 그리고 증가생활문화와 복식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체험학습프로그램에는 주제에 따른 5가지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였다. 먼저 일상적인 증가생활문화의 체험에 관한 내용은 집객과 방문예절, 차예절, 식사예절 등 세 종류의 현장체험학습으로 구성된다(증가 생활문화체험 I, II, III). 이것은 증가에서 종손과 종부 및 증가 어른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이 될 것이다. 나머지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학습은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실습작업으로써 천연염색과 바느질 체험으로 각각 구성하였다(증가의 생활문화체험 IV와 V). 증가복식문화의 체험학습 장소는 체험대상 청소년의 참여 규모에 따라 함평 이씨 증가의 안방이나 서원 및 마을 회관 등지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소요시간별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체험학습 대상자의 특성과 학교 상황, 참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시간을 배정하거나 체험실습 할 내용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4시간이 소요되는 증가 생활문화 체험교육이나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학습 등과 같이 주제의 내용에 따라 집중하여 선택하거나, 아니면 8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증가문화 현장체험학습을 선택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인 증가 의생활문화를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기초 모델로 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내용을 청소년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2) 청소년·가족 대상 증가 의생활문화 시범체험 학습

함평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 학습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포함된 세 가족이 시범체험에 참가하였고, 시범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 인상적인 체험내용, 시범체험의 수준(난이도), 시범체험 효과 등이 각각 평가되었다.

청소년들의 반응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시범체험 프로그램이 증가의 의생활문화를 체험하는데 얼마나 흥미롭고 타당하게 내용이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3명의 '청소년들은 모두 흥미롭고 체험 실습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상깊은 체험내용에 대하여 여중생(15세, 중2)은 '종부 할머니와 식사하며 옛날에 겪었던 사립살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좋았다'고 했고, 남중생(16세, 중3)은 '천연염색 체험이 신기하고 옛날 사람들이 슬기롭다'고 느꼈다고 답하였다. 여고생(17세, 고1)의 경우 '증가의 서원 마루에 앉아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바느질하여 만든 찻잔 받침

〈표 1〉 청소년대상 종가 의생활문화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모델(안)

체험학습	학습 목표 - 종가 전통생활문화의 이해 및 복식문화 체험/실습 교육 학습 대상 - 청소년,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 학습 지역 - 전라남도 함평 학습 종가 - 함평 이씨 종가 학습 테마 - 옛 향기와 손맛의 고장 함평, 함평이씨 종가의 의생활문화 체험학습	
교과영역	대영역 - 가정생활의 실제(예) → (적용)종가의 생활문화 체험학습	
	중영역 -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예) → (적용)천연염색과 바느질 체험	
소요시간	종가 의생활문화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의 내용	학습형태
1시간	체험학습의 목표 소개, 체험일정 및 체험학습내용 소개	
2시간	<주제1> 함평이씨 종가의 생활문화이야기 체험 • 종가 생활문화 체험학습(I) - 방문예절 교육 • 종가 생활문화 체험학습(II) - 다례 교육 • 종가 생활문화 체험학습(III) - 식사예절 체험	체험/실습
1시간	<주제2> 함평이씨 종가 및 서원 방문, 종가마을 산책하기	견학/관찰
3시간	<주제3> 함평이씨 종가의 의생활문화 체험 • 종가 의생활문화 체험학습(IV) - 천연염색 • 종가 의생활문화 체험학습(V) - 바느질 체험(예, 찻잔 받침 만들기)	체험/실습
1시간	<주제4> 종가 소재지역의 농가 특산 작물 및 생활유물(관) 견학	견학/관찰
교육장소	함평이씨 종가 및 서원, 종가 마을(회관) 등	

을 같고 차를 마셨던 것'을 좋았던 체험 경험으로 꼽았다. 시범체험의 수준에 관한 난이도에 관하여 시범체험에 참여한 세 학생 모두 '중·고등학교 수준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특히 실과 및 가정계열 실습 교과 내용을 생활문화의 현장체험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체험의 효과에 대하여, 여중생(15세, 중2)은 '시골에 간 경험이 없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중생(16세, 중3)은 '과거에 살았던 가정생활이나 전통의생활문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고 했고, 여고생(17세, 고1)의 '종가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서로 잘 알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의 시범체험에 대해 부모들의 반응(총 6명)은 다양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주말에 아

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이 생겼으면 좋겠다(5명)'는 반응과 '전남이나 광주지역에서 이런 종가 의생활문화 체험학습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현장에서 실현된다면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에 참가하려고 할 것(2명)', '전통생활문화의 접촉 기회를 자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유지하게 하는데 최선의 의식 개혁운동이 될 것(1명)', 그리고 '문화 소비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학교교육에 이러한 독특한 현장체험학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교육방법이다(1명)'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했고 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V. 결론 및 제언

### 1. 함평지역 종가의 복식문화

전남 함평군에 소재한 증가복식문화는 함평모씨 증가의 종부 이정금씨와 함평이씨 증가의 종부 박춘심 부부, 그리고 함평이씨 증가의 손인 이학 여사를 중심으로 증가복식문화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함평모씨 증가의 복식문화를 주요 원천인 종부 이정금씨(60세)는 친정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워 이씨 증가에 시집와서 길쌈, 염색, 제작(자수 포함)을 모두 담당해 왔다. 농지기 옷의 경우 소재는 모시옷, 미용옷(무명), 목화솜 넣은 미용옷 등이었고, 호박단, 양단, 모시치마 등이 주된 품목이었다. 당시 소품으로는 복주머니, 조각보 등을 만들었다. 종부를 통해 풍대로 깃물을 만들어 삼는 세탁방법과 의복 보관법, 그리고 염색방법이 자세히 밝혀졌다. 그리고 함평모씨 증가의 특징적인 복식문화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시어머니의 경우 흘겉의 흰색을 즐겼으며 8폭 치마와 속옷을 모두 챙겨 입으셨기 때문에 염색에서 제작, 속옷의 종류, 세탁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종부의 시집살이 이야기와 함께 관련지어 집안의 특징적인 의생활문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의 관련 조사를 통해 모씨증가의 독특한 상례풍습도 파악되었다. 수의는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반드시 임종 후에 제작에 들어갔으며 수의 제작에 참여하는 직계 자손들이 모두 머리를 풀고 바느질을 했고 망자가 편안히 저승으로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제작한 후 반드시 밖에 걸어 이승바람을 쐬인 후에 입혀드렸다고 한다. 또한 자녀의 옷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복식문화의 전통이 증언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종부의 복식문화는 모시 길쌈과 쪽염색, 수의제작, 자수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삼베로 제작한 상보자기와 두루마기가 현재 남아 있다. 종부가 아직은 젊어서 함평모씨 증가의 의생활문화를 많이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었고 실제 제작도 가능하였다.

함평이씨 증가 종부인 박춘심씨(83세)는 큰아들 종손이 서울에 살고 연로한 종손 노부부만이 증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서 종부의 실제 시연 제작은 하기 어려웠다. 종부는 함평이씨 증가의 고된 바느질 경험을 통해 이씨 증가의 복식문화를 전수받게 되었다. 함평이씨 동족마을인 나산면 초포리의 경우 문중 여성들과 동네 여성들이 함께 모여 길쌈하고 농지기 옥양목을 염색하고, 바느질하여 옷을 짓거나 조각보나 한자공예 등을 하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500년 역사를 가진 함평이씨 증가의 복식문화 사례의 경우 증가가 기울고 있고 종부가 연노하여 과거 증가복식문화에 관한 시급히 구술 자료를 채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며, 그 곳 동족마을 연구를 통해 지역 증가의 복식문화를 어느 정도는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본관이 함평이씨이며 함평지역 지주 집안의 딸인 이학여사(80세)는 자수 외에 전통한복과 염색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통해 수공예, 자수, 염색, 섬유, 디자인, 침공 등의 영역에서 많은 후진에게 전통 복식문화를 전수하고 있다. 어릴 때 유복한 증가의 생활문화 환경에서부터 자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전통 생활용품 수집으로부터 섬유와 염색에 연구로 확대되어 전통적인 색채와 색의 조화에 개인적인 연구 노력이 엮보인다. 이것은 증가의 복식문화나 전통의 생활문화가 종부 뿐만 아니라 딸을 통해 전수되어 발전해 온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함평 증가의 전통복식문화를 인터뷰를 통해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흔해나 상례, 제례 등의 통과례는 생활양식의 간소화에 따라 전통양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연령이 많은 제보자들의 기억 속에서나 겨우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의례에 작용하였던 전통복식과 수식 등의 복식문화에 대한 것도 거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서구화 된 복식용품에 밀려 증가나 전통복식문화의 유형의 복식자원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증가와 여성의 삶의 이야기가 함께 사례 조사되면서 증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조사자 및 지역 행정관계자에게 모두 전통생활문화의 가치가 새삼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증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보존 가치가 재인식되었으며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연구 및 재현, 그리고 이러한 증가이야기와 함께 증가의 의생활문화를 전수하고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하는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청소년대상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 및 시범체험학습

증가 전통생활문화 및 복식문화를 전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범체험을 실시하였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합평 증가복식문화에 대한 사례 조사를 기초자료로 하여 체험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대상의 현장체험학습은 증가가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의 장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가정 및 가사계열 교과와 실습교육에 적용해 본 것이다.

청소년대상 증가 의생활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실과와 가정 및 가사계열 교과와 가정생활의 이해와 의생활 실습 영역에 해당하는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교과 영역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개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기술·가정 교과가 남·여학생의 공용의 국민공통과목이므로 의생활문화 체험이 너무 여학생(여성)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총 8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4가지의 주제를 정하고 총 5가지의 체험학습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주제 1과 3은 본 체험학습의 중심 내용으로 <증가의 생활문화이야기>와 <증가의 의생활문화 체험하기>의 영역으로 각각 3가지와 2가지의 체험학습이 포함된다. 총 5가지 체험학습은 서로 관련이 깊다. 주제 1에 해당하는 <증가의 생활문화이야기>의 체험영역의 경우 증가와 증부의 내력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증가나 남의 집에 방문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게 되고(학습 I),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차 마시는 예절(다례)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되며(학습 II), 뒤이어 점심 등과 같이 식사시간이 겹치는 경우 한끼의 식사를 함께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절(학습 III)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구성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주제 2에 해당하는 <증가 마을 산책하기>가 휴식시간과 더불어 함께 진행된다. 뒤이어 주제 3의 '증가의 의생활문화 체험하기' 영역에서는 찻잔받침 만들기의 바느질체험을 할 조각천을 천연염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실습 체험하게 된다(학습 VI). 그런 다음 증가 마루나 증가마을의 합평이씨 증가의 서원에 모여 오손 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바느질 실습(학습 V)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4는 합평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환경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능가 목산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곳을 방문하거나 합평의 생활유물 전시장 등을 견학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현장체험교육프로그램의 예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범체험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 인상적인 체험내용, 시범체험의 수준(난이도), 시범체험 효과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서 체험학습의 효과가 평가되었다. 시범체험학습에 참여한 청소년과 부모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가 의생활문화의 체험학습교육은 증가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실과 및 가정·가사계열 교과목의 실습 및 체험학습 영역의 소재로써 타당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관련된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의 체험 및 실습학습 방향과 함께 지역의 실업교육 및 직업 개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무엇보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화적 원천을 실제 체험하게 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증가복식문화를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교육용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어 실제 확대 적용되기 바란다.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증가복식문화를 문화적 소비욕구와 문화 욕구 충족에 관심을 높은 현대인의 문화소비 트렌드와 일치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 소재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통복식문화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체험교육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시범체험학습을 통해 증가복식문화의 현장체험학습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자료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이다.

첫째, 증가 복식문화에 대한 현장조사와 발굴,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시급하다. 중택은 점점 낙후되고 증가문화를 유지하는 증부와 증손은 모두 연로하여 복식·생활문화를 전수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 및 전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증가복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동인의 하나로 증가복식을 문화콘텐츠로 개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증가문화연구는 가정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와의 다학제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산업적·교육적 모델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증가의 복식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적절한 관심과 필요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가의 개방 범위나 사생활 보호 문제, 이를 위한 지역 행정기관의 제도적 지원 노력, 그리고 지역 민의 긍정적인 참여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역(1998). "교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 OECD 발간자료 『Edaction Policy Analysis 1998』.
-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자료 136.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년도 교과 교육과정 연구방향 설정 워크숍-제7차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시·도 교과요원 연수자료-," 교육과정자료 157.
- 김문환(1997).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연미(1986). "장신구의 주술적 요소와 상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4). "조선시대 보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논문집.
- 김용서(1993). 진도지방의 남자상례제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3집.
- 나경수(2003).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전남대학교 박물관.
- 나수임(2000). 한국의례복식의 지호학적인 분석, 한국복식문화학회지 8권 5호.
-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2001). "증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나주, 함평, 영광, 영암 지역-," 동신대 여성문화연구소 워크샵 자료집.
-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2002). *남도 증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 배순미(1998). "한국전통매듭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미, 신효식, 오만록, 유명희, 최옥지(1998). *가정과 교육론*. 서울: 학지사.
- 선영란(2002). "생애사를 통해 본 증부의 정체성,"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 신윤숙, 최희(2002). "자초색소의 특성분석 및 염색성(제3보)-면섬유에 대한 자초색소의 염색성-,"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유명희, 서리나(2002).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모델-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권 3호.
- 유혜경, 홍나영, 이주현, 김찬주(1998). "아시아 전통 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제1보)-근대 동남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 이연자(2001). *천년의 삶으로 이어온 증가이야기*. 서울: 북이십일.
- 이왕기(2001). "전통적 주생활 문화환경의 관광상품화 전략," 한국가정과학회·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년도 학술대회.
- 이숙, 홍윤호, 신윤숙, 신효식, 한경미, 최정미, 김은정(2002). "한국전통생활문화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12호.
- 이주현, 유혜경, 김찬주, 홍나영(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착용: 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 전경목(2002). "전라남도 증가조사역사편-," 남도증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워크샵 자료집,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
-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 최영표 외(2001). "전라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 연구," 전라남도 교육청 용역보고서.
- 한국가정과학회·전남대 생활과학연구소(2001). "전통문화의 상품화," 2001년도 학술대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개발사업, www.korani.org.
- 한옥주(1985). "한국 고유복식의 변천원칙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나영, 김찬주, 유혜경, 이주현(1999). "아시아 전통 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2보)-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지* 17집.